

“세계적 과학기술 지식인프라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터”

산업기술정보원(KINITE)과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가 발전적 통합을 거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으로 새롭게 출발한지도 어느 듯 5년이 흘렀다. 이러한 세월을 반영하듯 KISTI는 이미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지식정보 인프라 기관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이처럼 ‘세계적’ KISTI를 가능케 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최전방의 야전사령관임을 자임하는 조영화 원장(52)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질적인 조직의 통합에 따른 잡음도 있을 법한 ‘통합’ KISTI를 특유의 리더십으로 융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조 원장을 만나 KISTI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들어봤다.

글 권경희 기자 · 사진 이혜성 기자



“**국** 내 과학기술정보 인프라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KISTI는 전문가간 첨단정보 등이 초고속 네트워크 상에서 공유되는 사이버 협력연구체제인 ‘e-R&D’ 시스템을 해답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조영화 KISTI 원장은 “체계적인 연구개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연구 데이터가 가상공간을 통해 전자적으로 수집·가공·유통·활용되는 사이버랩(lab) 개념을 구현해야 한다”며 “특히 세계 시장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성능 컴퓨터, 초고속 네트워크 등 연구개발 인프라를 융합한 서비스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영화 원장과의 일문일답.

▶ **KISTI는 국내 과학기술분야 최대 DB 서비스 기관입니다. 국가 과학 기술정보 전담기관으로서 DB 발전 전략을 소개해 주시지요.**

지식정보인프라는 한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지식정보인프라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데이터베이스지요. 하루가 멀다 하고 대량의 과학기술정보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베이스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KISTI는 통합과 맞춤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방대한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통합형 DB를 구축해 KISTI의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원스톱 포털서비스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최근에는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연구의 기획단계부터 사업화 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맞춤형 데이터베이스 전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KISTI는 나노·부품소재·바이오인포매틱스분야 등 연구 개발자를 위한 맞춤형 DB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KISTI가 최근 전문 DB를 민간포털사업자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 화두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발전 계획이 있으신지요.**

공공기관의 전문 DB를 민간포털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것은 KISTI가 처음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펼친 것은 공공 정보를 보다 많은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가치와 공공성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KISTI가 제공하는 정보는 포털사업자인 엠파스를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는데 매월 2억 페이지 이상의 자료가 열람되고 있을 정도로 호응이 높습니다. 과학기술 관련 정보의 확산은 궁극적으로 국가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높이는 척도입니다. 과학기술은 어렵고, 일상생활과 차단된 분야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매우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엠파스 외에 다른 여러 민간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최근 국내외 학술기관과 업무협약 활동이 다양한데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올해 대외협력 분야에서는 '세계와 함께하는 KISTI' 라는 슬로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 지식 정보를 신속히 수집해 DB화 하고, 국내 산?학?연 관련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KISTI는 현재 해외 49개국 422개 정보기관과 정보자료를 교환하거나 기증받고 있으며 유수의 해외 과학기술 정보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를 위한 휴먼 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미 2000년부터 대만과학기술 정책연구정보센터(STPD)와 전문가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중국 최대의 과학기술정보 연구소인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ISTIC)와도 연구원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약 40여개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과학기술정보위원회(ICSTI)의 2008년 총회를 한국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ICSTI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은 과학한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 수집과 서비스 수준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 과학기술 정보 인프라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국내 과학기술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이미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정보화 정책을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무성?에너지성?NASA, 국방성 등 7개 부처와 연방조직 등이 참여하는 CENDI라는 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영국은 과학기술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정보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정보 체계를 실효성 있게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난

2004년 7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방침을 확정했고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로 중심으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과학기술 관련 정보 시스템은 각 부처의 목적에 따라 개별적?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정보의 공유 또는 연계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 완성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수행관리?확산 등 전 주기를 통해 발생하는 정보를 각 부처가 적시에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끝으로 KISTI의 사업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통합기관으로 출범한지 올해로 5년째를 맞은 KISTI는 국가 과학기술정보의 중추기관으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뒷받침하고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세계 일류 지식정보인프라 전문기관' 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ISTI는 기관 출범 이후 미래지향적인 발전모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으며, 향후 혁신적인 R&D 패러다임에 편입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업을 소개하면, 첫째 국가 e사이언스 체제 구축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연구자들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인력과 첨단 장비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이 정착될 경우, R&D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글로벌 과학기술 협업연구망(GLORIAD)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중?미?러 중심으로 전 세계를 잇는 정보 고속도로인 '글로벌리어드망' 을 구현해 핵융합, 고에너지물리 등 첨단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협업 연구를 함으로써 우리의 과학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입니다. 셋째, 국가 과학기술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국가 차원의 R&D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동시에 과학기술 DB와 검색 시스템의 표준화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미래 지향적 사업들은 향후 KISTI가 '세계일류 지식정보인프라 전문기관' 으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e사이언스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KISTI의 노력을 지켜봐 주십시오. ●

